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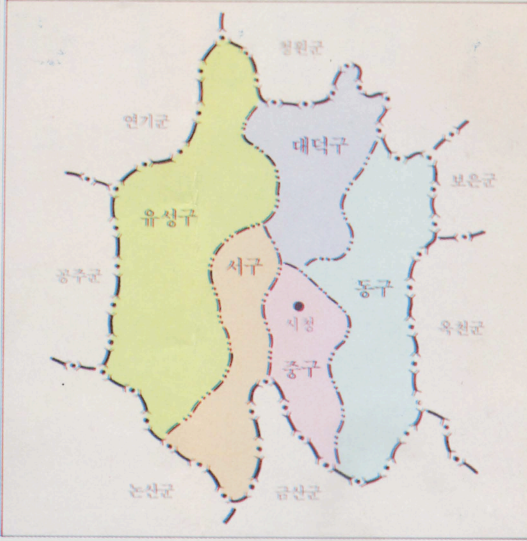
목달미 디딜방아 액맥이놀이

(제 31 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종목)



대전직할시

관 내 도



주요연혁

- 백제시대-우슬군
- 통일신라-비풍군
- 고려시대-회덕현, 진잠현
- 조선시대-회덕군, 진잠군
- 1914. 3-대전군 대전면
- 1931. 4-대전읍 승격(인구 23,284명)
- 1932. 10-충남도청 이전(공주→대전)
- 1935. 10-대전부 승격(인구 39,061명)
- 1949. 8-대전시로 개칭(인구 126,704명)
- 1963. 1-대덕군 회덕면 일부와 유천면 전역편입(인구 289,511명)
- 1977. 9-동구·중구의 구청설치(인구 550,000명)
- 1983. 2-유성읍, 회덕면 등 1읍 1면 20리 편입(인구 776,110명)
- 1989. 1-직할시 승격(540km², 1,020,613명)

행정구역

구	분	면	적	인	구	행		정		구		역	
						동		통	반	통	반		
						행	정					법	정
계			539.90km ²	1,051,795명			76개	176개	1,569개	7,452개			
동	구		135.93	302,293			24	45	446	2,260			
중	구		64.50	312,058			25	26	482	2,405			
서	구		96.34	206,637			10	27	300	1,341			
유	성	구	176.27	80,148			8	53	136	489			
대	덕	구	68.86	151,259			9	25	205	957			



* 목달동 연혁

- 삼국시대-백제 우슬군에 속함
- 통일신라시대-비풍군 유성현에 속함.
- 고려시대-공주부에 속함.
- 조선시대-공주군에 속하다가 1895년 회덕군에 편입.
- 1914년-대덕군 산내면 목달리.
- 1989년-대전직할시 중구 목달동.

* 마을현황

- 인구 : 59세대 293명
- 면적 : 4.2km²

인사말씀



맷돌이 거친곡식을 곱게 갈아내어 정제된 음식을 빗듯이 장구한 역사속에서 다듬어진 전통문화는 그 민족의 향기와 색채와 무늬를 잘 나타내주는 민족정서의 원천이라 할 것입니다.

올해로 31회째를 맞이하는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는 그간 잊혀지기 쉬웠던 자랑스런 민속을 발굴, 재현하면서 생활속에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으로 되살려 놓은 값진 자리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비약적인 시세발전을 이루고 있는 우리 대전 직할시가 이번 대회에 첫 출연을 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우리 고장의 대표적 민속인 「목달미 디딜방아 액맥이 놀이」를 재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선보이는 민속놀이는 오랜 옛날부터 마을의 액운을 없애고 평화롭고 복되게 살기를 기원하면서 신앙과 놀이의 성격을 함께 표현하는 민속예술로써, 우리 고장의 순후하고 정감 넘치는 특성을 잘 나타내준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이번이 처음 출연이지만 '93년 대전EXPO'93과 아울러 본 대회를 개최하게 된 시점에서 그 준비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 10월 23일

대전직할시장 이 봉 학

목달미 디딜방아 액맥이놀이



- 고 증 : 이 필 영 <한남대학교 교수>
- 구 성 : 최 문 휘 <충청 향토사 연구소장>
- 연 출 : 조 광 자 <중앙농악회 회장>

□ 주 요 내 용

“목달미 디딜방아 액맥이놀이”는 大田直轄市 寶文山 산록에 위치한 大田直轄市 中區 山西洞 목달미 마을에서 전해오는 민속놀이로서 마을에 厄運이 겼을 때 그 厄鬼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웃마을의 디딜방아를 훔쳐와서는 마을 삼거리에 세우고 그 마을에서 厄鬼를 몰아내는 祭享을 행하며 마을 사람들이 흥겹게 노는 놀이이다.

이 “디딜방아액맥이놀이”는 正月 대보름날 이웃마을의 디딜방아를 여러 사람이 喪輿소리를 내며 메고와서 마을 삼거리에 세우고 厄鬼를 몰아내는 祭享을 올리는데 여러 아낙네들의 속옷을 디딜방아다리에 걸쳐 절정에 이르렀을 때 寡宅의 속옷을 디딜방아다리에 걸치고 햇불을 피워 마을 잔치를 벌인다.

이때 厄鬼를 몰아 내기위한 춤사위나 각종 厄鬼들의 律動이 특이하다.

□ 해 설

○ 첫째마당—입장

정월 대보름 동이 틀 무렵 마을 주민들은 400여년 묵은 목달미마을 입구 삼거리의 느티나무 밑으로 모인다.

용담기, 농기, 영기, 오방기 등이 기세를 올리며 앞서오고 뒤따라 걸립농악패가 질긋 등을 흥겹게 치며 등장하고 이어서 양반, 대포수, 조리중, 광대, 방울새, 무수, 각시, 주모 등 잡색들이 농악가락에 맞춰 어깨춤을 추며 따라 나선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잦은 머리, 두마치, 삼채가락에 맞춰 한마당 놀이판이 벌어지고 장승앞에서 그 마을의 수호신께 마을의 안녕을 비는 축원을 올린다.

대전 하고도 목달미. 삼재 팔난 관재 구설 일액 월액 막어다가 의주 압록강에 소멸하고 이 터 이 명당에서 천년을 누리시고 만년을 지덕하여 자손도 장성하시고 금의 옥식으로 연담 쌓고 남전북담 울을 삼아 태평성대로 잘살게 해줍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 둘째마당—디딜방아 훔치기

충청지방 특유의 7채 가락이 펼쳐지며 오방기는 중앙에 황기, 북쪽에 흑기, 동쪽에 청기, 서쪽에 백기, 남쪽에 적기가 세워진다.

삼거리에서는 보름달이 뜰무렵 햇불을 밝혀 한마당 구성진 농악과 춤판을 벌리고 있는 동안 주민들이 빠져나와 빈 상여를 가지고 이웃마을 무수리로 향한다.

그동안 농악패와 잡색들 놀음은 더욱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진을 친다.

그 사이 무수리 모정 입구에 상여를 내려놓고 디딜방아 있는 곳으로 숨어들어 디딜방아를 훔쳐내서는 상여에 싣고 구슬픈 상여소리 행렬을 이루어 무수리를 빠져나오고 일부 아낙네들은 솟뚜껑을 훔쳐가지고 나온다.

이웃마을 무수리를 빠져나와 목달미 마을에 접어들면서 상여소리는 구슬픈 가락이 점점 빠른 템포의 장난기 섞인 소리로 변한다.

상여소리

어허이~어하~에헤이~어하~(후렴이하생략)

세상천지 만물중에 사람밖에 또있는가
여보시오 시주님네 이내말씀 들어보소
이세상에 견고할줄 태산같이 믿었더니
번개같이 빠른세월 원수백발 돌아오니
원통하고 절통하다 애달프고 설운지고

~중 략~

어제오늘 성탄뎡이 저녁나절 병이들어
섬섬약질 가는뎡매 태산같은 병이들어
인삼녹용 약을쓴들 약효힘이 있을소냐
무너블로 굶을한들 굶덕인들 있을소냐
백년자손 이별하고 하릴없이 나는가네
친구벗님 많다한들 어느친구 동행하며
일가친척 많다한들 어느일가 대신가나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워마라
명춘삼월 봄이오니 너는다시 피련마는
우리인생 한번가면 다시오기 어려워라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밖에 저승이요
북망산천 멀다더니 건너안산 북망이요

~이하 생략~

○ 셋째마당—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기다리고 있던 목달미 마을 사람들은 들낙날락하던 잡색의 신호에 따라 농악을 울리며 디딜방아를 무사히 훑쳐 가지고 돌아오는 패들을 마중한다. 이때 상여소리는 완전히 변하여 농악가락에 맞물려 어우러지고 삼거리에 디딜방아가 도착하면 다시 한마당 환영의 놀이판이 벌어지는 것이다.

농악이 멎으면서 상여에서 내려진 디딜방아가 삼 거리에 거꾸로 세워지고 어느새 준비된 제물이 그 앞에 차려진다.

액운을 제거하고 태평을 기원하는 제가 행해지고 나면, 북장단에 맞춰 도액살풀이 주문이 외워진다. 이때 마을 여인들은 속곳을 들고 액을 풀어내는 춤사위를 벌리면서 거꾸로 세운 디딜방아다리에 속곳을 건다.

도액살풀이

정월월 이팔월 삼구월 사시월 오동지
 육석달 일년이면 열두달이요 과년하고는 열석달
 삼백하고는 육십일 한달하고는 시른날 주야하고는 이십사지
 하루하고는 열두신다 일월거치 밝혀줄제
 정월한달에 드는액은 이월영동에 막어주고
 이월한달에 드는액은 삼월이라삼짓날 제비초리로 막어내고
 삼월한달에 드는액은 사월이라초파일날 부처님앞에 키어놓던 관등불로 막어내고
 사월한달에 드는액은 오월이라단오날 흥백수 푸른가지 높다랗게 그네매고 오
 락가락 추천하던 근디줄로 막어내고
 오월한달에 드는액은 유월이라 유두날 뇌성소리로 막어내고
 유월한달에 드는액은 칠월이라 칠석날 견우직녀 상봉시에 오작고 다리좌주던
 까치머리로 막어내고
 칠월한달에 드는액은 팔월이라 열나흘날 오리쟁(송) 쉼 많이 빛어 이집저집에
 나뉘먹던 쟁변굽으로 막어내고
 팔월한달에 드는액은 구월이라 구월날 국화주를 많이 빛어 집안식구 모여앉어
 사당차리로 막어주고
 구월한달에 드는액은 시월이라 상달 무시루떡을 두툼이 찌서 고사시루로 막어
 내고
 시월한달에 드는액은 동짓달이라 동짓날 동지 팔죽을 많이 쑤어 중문대문 쪼
 뜨리고 대문밖으로 소멸하니 삼재팔난 관재구설이 뜨거운 팔죽을
 뒤비어 쓰고 먼방으로 도망가고
 동짓달 드는액은 셋달이라 그믐날 흰떡가래를 마주잡고 아주 평평 뚜드려내고
 셋달한달드는액은 정월이라 열나흘날 오희잠곡 밥을 짓고 가진 채소로 옷침쳐서
 삼도 내거리 썩 나시 먼방으로 소멸하니 만사가 대길하고 소원성취가
 발원이요
 어~목달미 방아에다가 이 정성 이 발원을 드린 뒤에는 삼재팔난 관재구설 일
 액월액 변고액난 우환질병은 먼방으로 소멸하고 이터 이명당에 천년을 누리시고
 만년을 지덕하여 자손도 장성하고 부귀공명으로 잘사시게 점지해 주소서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 넷째마당—퇴장

다시 뒷풀이 한마당이 농악과 잡색들의 놀음과 마을 사람들의 가무로 동아리져 액운이 없는 한해가 되리라는 믿음 같은 것을 마음 속에 품으면서 굿거리 장단에 맞춰 즐거운 정월대보름 한판이 벌어지는 것이다. 디딜방아 액맥이 놀이가 끝나고 농악패의 동살푸리 가락에 맞춰 마을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퇴장한다.

由 來

대전직할시를 가로지르는 三川의 가운데 줄기인 유등천 상류를 이루고 있는 보문산 남쪽 산협이 감싸고 있는 목달미 마을은 무수리, 방아미, 완전이, 황새말 등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지역 디딜방아 액맥이 놀이는 그 옛날에는 곳곳에서 있었다 하며 특히 정월 대보름 날 한해의 액을 방어하는 큰 행사로 치뤄졌고 돌림병이 들 때는 놀이적 성격보다는 액맥이 마을곳에 가까운 형태로 행해졌다 한다.

이 민속이 목달미에서 언제부터 행해졌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목달미, 무수리 마을이 오래된 마을임을 알 수 있다.

안동권씨, 은진송씨 등의 세거지인 이 고장은 유교학의 전통고장으로 전해오고 있고 주산인 보문산은 곳곳에 절터가 발견되는 불사가 많았던 산이었음이 확인된다

목달미 마을의 디딜방아 액맥이 풍습도 이같은 지역적 특성이 가미되어 제가 행해지고 거촌적인 행사로 치뤄졌다. 디딜방아를 훑쳐 액맥이를 행하는 풍습은 그 기원이 고려 현종때부터 퍼졌다는 기록이 있는데 현종 12년 5월에 들가운데 떠돌아다니는 들귀신을 위로하고 몰아내기 위해서 토룡(土龍)을 만들고 제사를 지낸 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디딜방아로 형태가 변하였다고도 전한다.

지역에 따라 각기 성격을 달리하는데 경상도 지방에서는 기우제를 지내는 풍습으로 행해졌고 전라도 지방에서는 액맥이로 행해졌으며 충청도 지방에서는 마을 전체의 액맥이 놀이로 계승되어 왔다는 점이 이채롭다.

더욱이 아낙네들이 함께 속곳을 벗어 액을 풀어내고 디딜방아에 걸고 흥겨운 놀이판이 되었다는 데서 민간신앙적인 면과 오락적인 면이 동시에 결합되어 마을전체적인 호응이 있었던 민속으로 계승되었다.

출 연 자 명 단

성 명	연 령	성 별	담 당 역	성 명	연 령	성 별	담 당 역
조동호	65	남	기 수	유수정	27	여	각 시
김병수	60	"	"	김은영	26	"	주 모
근규창	53	"	"	황홍선	65	남	영 감
권경재	60	"	"	조광자	46	여	(巫)
서승복	58	"	"	송을순	34	"	아낙네들
이영구	65	"	"	지석애	50	"	"
이원실	64	"	"	오성희	56	"	"
권형원	61	"	"	김유정	63	"	"
유종득	60	"	"	태향임	33	"	청년들
조정석	56	"	"	박광덕	38	"	"
송용준	57	"	"	임을순	"	"	"
강정열	64	"	"	이금석	37	"	"
김창덕	72	"	"	김영순	32	"	"
박해석	72	"	"	송윤희	29	"	"
장병윤	27	"	"	박갑수	38	"	"
정필한	69	"	호 적	신정순	52	"	"
이규현	74	"	상 쇠	강부예	"	"	"
유창열	42	"	부 쇠	이용자	45	"	"
성운식	62	"	징	이상철	27	남	"
김중열	66	"	"	윤성환	25	"	"
조성호	55	"	장 구	윤형석	"	"	"
김성실	29	"	벽 구	박주민	29	"	"
이순복	30	"	"	성시천	28	"	"
남기천	26	"	"	최재영	30	"	"
고민선	25	"	"	김재현	27	"	"
김윤정	24	"	"	유정희	30	여	여인들
전미경	41	"	"	강은경	30	"	"
장병찬	41	"	"	김경아	29	"	"
조세영	64	"	"	변성아	27	"	"
장택수	53	"	대포수	길정희	28	"	"
성의경	38	"	포 수	김미영	26	"	"
한순보	57	"	양 반	김현경	24	"	"
박영길	62	"	광 대	정준용	63	남	축 관
주현석	30	"	방울새	장정은	40	"	집 사
백선하	28	여	조리중	송순갑	76	"	부장단



사진 EXPO '93 조감도 Bird's-eye view of Taedok EXPO '93

EXPO

대전엑스포 '93

- 개요
 - 개최시기 : 1993. 8. 7~11. 7 (93일간)
 - 장소 : 대덕연구단지 도룡지구
 - 행사장면적 : 27만 3천평
 - 예상관람인원 : 약 1천만명
- 행사내용
 -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아이디어 전시
 - 미래를 향한 구상과 지혜의 전시
 - 국제 종합예술 축제
- 기대효과
 - 세계적 첨단과학 기술도시로 발전
 - 도시기반시설의 획기적 개선

○휘장
 • 지구와 태극의 동적인 조화
 • 영원한 발전의 상징

○마스코트
 • 우주아기요정을 형상화
 • 친근감과 과학적 상상력을 키우며 꿈과 희망을 암시



성명	연령	성별	담당역	성명	연령	성별	담당역
조동호	65	남	기수	한순복	57	여	양반
김병수	60	"	"	박영길	62	남	광대
연규창	53	"	"	백선하	28	여	조리중
권경재	60	"	"	유수정	27	"	각시
서승복	58	"	"	김은영	26	"	주모
이영구	65	"	"	황홍선	65	남	영감
이원실	64	"	"	조광자	46	여	무(巫)
권형원	61	"	"	송순갑	76	남	북장단
유종득	60	"	"	정준용	63	"	축관
조점석	56	"	"	송을순	34	여	아낙네들
송용준	57	"	"	지석애	50	"	"
강정열	64	"	"	오송희	56	"	"
김창덕	72	"	"	김유정	63	"	"
박해석	72	"	"	김희경	23	"	"
장병운	27	"	"	태향임	33	"	청년들
김정호	32	"	"	박광덕	38	"	"
정필한	69	"	호적	임을순	38	"	"
이규현	74	"	상쇠	이금석	37	"	"
유창열	42	"	부쇠	김영순	32	"	"
성운식	62	"	징	송윤희	29	"	"
김중열	66	"	"	박갑수	38	"	"
조성호	55	"	장구	신정순	52	"	"
장병천	60	"	"	김부예	52	"	"
조세영	27	"	"	이용자	45	"	"
전병학	60	"	북	이상철	27	남	"
장희수	27	"	"	윤성환	25	"	"
김성실	29	"	법구	박주민	29	"	"
이순복	30	"	"	유정희	30	여	여인들
남기천	26	"	"	강은경	30	"	"
고민선	25	"	"	김경아	29	"	"
김윤정	24	"	"	변성아	27	"	"
전미경	41	"	"	길정희	28	"	"
장택수	53	"	대포수	김미영	26	"	"
선의경	38	"	포수	김현경	24	"	"